

KIPA NEWS



발명교육계 “한국의 빌게이츠 키워내자”

우리회 4개 교육학회, 창의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MOU 체결

○ 리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학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의발명교육의 진단과
T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교육전문 4개 학회와 창의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회와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기술교육학회, 한국영재교육학회, 한국상담학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식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정규교과 체계를 마련하는 등 발명교육 영역의 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회와 각 학회는 창의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발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현장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교육수요 발굴·창출·활용 등 발명 교육의 확산을 위한 노력, 발명교육 교재 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 발명인재 육성 이슈에 관한 정책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청소년 발명교육이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요소라는 공동인식을 가진 학회들과 서로의 강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발명·지식재산 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회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확산 간담회 열어

○ 리회는 지난 7월 18일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추진 방안과 성과를 공유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사업화 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주)에이치케이터빈 김정훈 대표는 "특허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금융연계지원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문턱을 낮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부강테크 유대환 대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해외선도업체의 IP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회는 지난해부터 해당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원성과를 공유하고 사업개선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